

# 베테랑 호랑이들은 분위기 메이커

**주장 이범호·김원섭, 후배들과 격의없는 '동행'**  
**김주찬 '응원단장' 변신...김병현 배팅 투수 자처**  
**팀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에 전력 업그레이드**

KIA 덕아웃에 '베테랑 분위기 메이커'들이 맹활약중이다. 승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플레이를 해야 하고, 후배들을 토닥이면서 분위기도 끌어올리느라 KIA 베테랑들이 바쁘다.

올 시즌을 앞두고 KIA 베테랑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다. 김기태 감독의 '캡틴 지원과 정책'에 따라서 국내에서 그곳까지 몸을 만든 베테랑들은 뒤늦게 오키나와 캠프로 건너가 시즌 준비에 속도를 냈다.

사령탑의 배려 속에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면서 베테랑들의 어깨가 무겁다. 베테랑에게 주어진 자율과 권리에 따른 책임감이 어깨에 내려앉은 것이다. 주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린 후배들과 미국 애리조나 캠프에서부터 출발한 이범호(35)는 "나는 처음부터 캠프를 치렀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지만 베테랑들은 "시즌에 맞춰 준비를 잘 해서 몸상태가 좋다. 그만큼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강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험과 연차에 따른 체계적인 준비가 이뤄지면서 KIA는 특별한 부상 없이 정예 멤버로 이번 시즌을 출발할 수 있었다. 또 지난해 초반 경기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던 베테랑들은 캐조와 컨디션으로 좋은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후배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전력의 업그레이드에도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야수 최고참인 김원섭(38)은 "훈련에 대해 배려를 잘 해주셔서 컨디션이 좋

다. 올해 후배들이 많이 성장했다. 매년 후배들과 경쟁을 하면서 시즌을 보냈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선배로서 좋은 모습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언급하면서 후배들과 스텝없이 대화를 나누고 장난을 치면서 '동행'을 하고 있다.

과묵하기로 소문난 김주찬(35)도 몸과 입이 바빠졌다. 올 시즌 지명타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김주찬도 공수교대 시간에 바쁘다. KIA의 수비가 끝난 뒤 그는 덕아웃 앞에 서서 마지막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함께 뛰고 있다. 덕아웃에 파이팅도 불어넣는다. 김주찬은 얼마 전 1792일의 기다림 끝에 세이브를 수확한 광정철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든 채 "광정철! 광정철!"을 연호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주장 이범호의 역할은 말할 것도 없다. 3년 연속 무거운 책임을 짴지만 늘 밝은 표정으로 후배들을 아우르면서 훈련을 위해 달려나가는 주장이다. 농담도 곧잘 하는 재미있는 선배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선수수업 역할을 하는 베테랑도 있다. 합평 헬린저스 필드에 특급 배팅 머신이 등장했다. 골반이 좋지 않아서 재활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김병현(37)이 배팅볼 투수를 자처한 것이다. 앞장서서 뛰면서 함께 웃고, 같이 재활을 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배팅볼을 던져주기도 하는 등. 명성과 권위를 내려놓은 베테랑들이 '호랑이 군단'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 올 시즌 캐치프레이즈인 '동행'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5일 합평 헬린저스 필드에서 재활 훈련중인 김병현(왼쪽)이 배팅볼 투수를 자처, 후배들에게 공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 6일 LG와의 경기에 앞서 훈련을 준비하던 KIA 캡틴 이범호가 모자를 돌려쓰는 채 해맑게 웃고 있다.



김주찬이 지난 2일 NC와의 원정경기 5회 1·3루에서 이범호의 좌월 2루타 때 홈에 들어온 뒤 이어 홈을 밟은 후배 나지완을 격려하고 있다.

## 김주형 "실시간 검색서 공민지 이겼다"

**덕아웃 T 특·특**

▲공민지를 이겼다고 하더라구요

김주형은 요즘 KIA 덕아웃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 중 하나이다. 시범경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냈던 그는 개막전에서부터 안타 행진을 시작해 지난 5일 LG와의 홈 개막전에서는 투런포 포함 3타수3안타의 맹활약을 했다.

덕분에 이날 김주형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름이 됐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도 이름을 올린 김주형. 실시간 검색어 이야기가 나오자 김주형은 "공민지를 이겼다고 하더라"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걸그룹 2NE1의 멤버로 활약해온 공민지는 탈퇴설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날 최고의 핫 이슈였다.

▲몰어보는 사람이 없네요

지난 시즌 백용환과 이흥구의 깜짝 활약으로 당당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나카무라 타케시 코치.

다케시 코치는 6일 "요즘은 백용환, 이흥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없다. 애들이 못하는 것 같다"는 농담을 했다. 그러면서 "이흥구에게 홈런준에 있는 차를 맞춰서 상품으로 받으면 주라고 했더니 단번에 거절을 하더라"고 웃었다. 이에 이흥구는 "아직 내가 차가 없다"는 말로 자신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7년을 해도 틀어 안 보이는데

6일 경기를 통해 정규시즌 데뷔전을 치른 인물이 있었다. 은퇴 후 마이크를 잡은 서재웅 SBS 해설위원이 KIA와 LG의 경기를 통해서 정규시즌 첫 해설을 하게 된 것이다. 정장 차림으로 일찍 경기장에 나와 취재 활동을 하던 서재웅. "긴장했나?"는 질문을 받아 "오늘 말할 것도 없을 것 같다.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호탕하게 웃었다.

이날 서재웅과 같이 해설자로 마이크를 잡은 이가 바로 야구 대설팀이자 해설위원회의 톱스타 이순철 위원이었기 때문이다. 옆에 있던 정우영 캐스터도 "하긴 나도 7년을 (이순철 위원과) 같이 방송을 했는데도 끼어들 틈이 안 보인다"고 말해 웃음을 주었다.

▲진정 좀 되었는데 물어봤습니다

김기태 감독은 6일 훈련 시간에 외야수 오준혁을 붙잡고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했다. 훈련이 끝난 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기태 감독은 "진정 좀 되었는데 물어봤다"고 답했다.

기대와 달리 개막 세 경기에서 경직된 플레이로 안타를 신고하지 못했던 오준혁.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던 만큼 김 감독 입장에서도 아쉬운 오준혁의 부진.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날 스타팅 라인업에서 오준혁을 제외한 김 감독은 "그래도 많이 긴장이 풀린 것 같다"며 웃음을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정현 ATP US 클레이코트 챔피언십 8강행

정현(71위·삼성증권 후원)이 남자프로 테니스(ATP) 투어 대회에서 개인 통산 두 번째로 단식 8강에 진출했다.

정현은 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ATP 투어 US 클레이코트 챔피언십(총상금 51만5천25 달러) 대회 사흘째 단식 2회전에서 토미 폴(200위·미국)에게 2-1(5-7 6-2 6-2)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정현은 지난해 10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 선전오픈 이후 6개월 만에 투어 대회 단식 본선 8강에 다시 올랐다.

정현은 3회전에서 톱 시드인 존 이스너(15위·미국)와 맞붙게 됐다. 이스너는 키 208cm의 장신으로 빠른 서브가 주특기인 선수다.

정현 경기에 앞서 열린 테니스 컵들과(59위·미국)와 2회전에서도 이스너는 서브 에이스를 무려 24개나 꽂아넣으며 2-0(7-6 7-6) 승리를 거뒀다. 올해 데이비스컵에서도 시속 253km의 강서브를 넣어 남자 테니스 사상 세 번째로 빠른 서브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남자 테니스 사상 최고 시속 서브 기록은 2012년 부산오픈 헬린저스에서 샘 그로스(호주)가 세운 263.4km다.

정현은 1세트에서 먼저 폴의 서브 게임을 때리며 게임스코어 3-1로 앞서 나갔으나 5-4로 앞선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키지



못하면서 역전을 허용했다. 하지만 2세트부터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올해 19세로 자신보다 한 살이 더 어린 폴의 기세를 잠재웠다.

정현은 ATP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매 포인트를 따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상대가 좋은 경기력을 발휘했지만 3세트에서 역전승을 거둬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스너와는 이번이 첫 대결인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를 하기 전에 격정할 일은 아니다"라며 "오늘 경기에서 소진한 체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마스터스 파3 콘테스트 출신원 '풍년'

**하루 9개 쏟아져**

제80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파3 콘테스트에서 출신원이 9개나 쏟아졌다.

7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서 열린 파3 콘테스트에서는 같은 조에서 경기한 리키 파울러와 저스틴 토머스(이상 미국)가 4번 홀에서 연달아 출신원을 기록하는 등 대회 사상 역대 최대 출신원 기록을 세웠다.

파3 콘테스트는 대회 개막에 앞서 9곳의 파3 홀에서 참가 선수들이 경기하는 이벤트다.

선수들의 캐디를 아내나 애인, 자녀 등 지인들이 맡는 등 실력을 겨루는 의미보다는 대회 개막을 앞두고 재미에 중점을 둔 행사다. 특히 이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가 본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적이 없다는 징크스도 유명하다.

올해 대회에서는 파울러와 토머스 외에 올해 80세인 게리 플레이어(남아공)가 역대 최고령 파3 콘테스트 출신원 기록을 수립했다.

플레이어는 마스터스 본 대회에는 52차례 출전했으나 출신원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파울러, 토머스, 플레이어 외에 올해 파3 콘테스트 우승자 지미 워커(미국)와 앤디 설리번(잉글랜드), 다비드 링메르트(스웨덴), 잭 손슨(미국), 스마일리 코프만(미국), 웨브 심프슨(미국) 등이 출신원을 기록했다.

올해 전까지 최대 출신원 기록은 2002년과 2015년의 5개였다.

플레이어는 "하루에 출신원 9개가 나올 확률은 2000만분의 1"이라고 놀라워했다. 또 올해 우승자 워커의 8년더파 19타는 역대 파3 콘테스트 최저타 기록이기도 하다. 종전 기록은 1965년 아트 월, 1973년 게이 브루어의 20타였다.

/연합뉴스



## 강정호 눈 빠지게 기다리지 말입니다

**연습경기 5이닝 수비... 19일 복귀 준비 착착**

15일짜리 부상자 명단(Disabled list)에서 2016시즌 개막을 맞이한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연습경기를 무사히 마쳤다.

강정호는 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브래드던에 있는 피츠버그 마이너리그 훈련 캠프인 파이릿 시티에서 열린 마이너리그 연습경기에 출전해 공격과 수비 모두 소화했다.

CBS스포츠는 "강정호가 5이닝 동안 수비를 했고, 4번 타석에 들어갔다. 여전히치고 난 뒤 주루는 1루까지 만으로 제

한했지만,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다"면서 "강정호는 4월 말 복귀가 가능하며, 3루수 자리를 데이비드 프리스로부터 물려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지 피츠버그 전담 기자들도 각자 트위터에 강정호의 연습경기 출전 소식을

전했지만, 수비 포지션과 타격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이제 강정호는 공격과 수비는 큰 문제가 없다. 주루 역시 1루까지는 전력질주에 큰 무리가 없지만, 2루 쪽으로 몸을 돌리는 것에 조심스러워할 뿐이다. 이날 경기

에서도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에게 1루까지만 뛰도록 해 철저히 보호했다. 지난 4월 2016시즌 개막에 맞춰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강정호는 날짜상 19일 메이저리그 복귀가 가능하다.

피츠버그가 강정호 자리를 잠시 대신 채울 선수로 영입한 프리스는 2경기에서 타율 0.444(9타수 4안타)로 활약 중이다.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가 복귀하면 3루 주전을 맡기고, 프리스는 1루와 3루를 오가며 백업 역할을 하는 식으로 교통정리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